

“불교공부로 마음 치유... 그 에너지 사회에 환원”

청년 신행활동으로 삼포 스트레스 날려요!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숨 한번 크게 쉬고 주위를 살펴보자. 의외로 고민을 나누고 수행도 하고 취미활동도 즐기는 젊은 청년 불자들이 많다. 이들과 함께한다면 불안하고 막막한 미래 따위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주>

88만원 세대, 모태슬로, 등골브레이크, 삼포세대, 고시원 인생, 삼각김밥인생, 친척들 만나기 싫어, 이번 인생은 무효다, 무한경쟁... 요즘 2030세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각박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과 사회가 원망스럽게

수행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 모토

정도회 청년부

지난 2012년 청년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빠던 한해다. 스펙쌓기와 취업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년 정도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는 수행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도회의 모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일과 수행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청년 정도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청년정도회 팀장 이효상 씨(32)는 “불교가 보통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정도회는 개인의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청년들이 사회적인 이슈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수행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경쟁 없는 삶, 가슴 뛰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청년 정도회”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이다.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인 김제동 씨의 재능보시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40개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다. 3만 3182명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만도 1440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이 팀장은 “개그맨 김제동 씨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토크쇼 형식의 무대였다. 경쟁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웃음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주고자 했다”며 활동사항을 전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정도회를 확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서울과 대구에만 있던 정도회를 대전 청주 포항 울산 등으로 확대시켰고 2013년에는 부산 인천 수원 등에도 이를 확산 시킬 예정이다.

2005년도에 시작돼 청년들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북아역사대장정도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 답사 여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역사교육을 고취시키고 통일 의식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반향해도 관향’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매회 40여 명의 자원 봉사 청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 지난 2012년에도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해 한 회 당마다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책으로도 출간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뿌듯해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도회 청년부는 600여 명에 이른다. 불자 청년이 부족하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청년부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팀장은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곳이 정도회 청년부다. 불교를 통해 스스로 마음 치유를 하고 이 에너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배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명했다.

“내 중심이 서야 사회생활 잘해요”

한마음선원 본원 청년회

해마다 열리는 연등축제의 연등행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체가 있다. 바로 한마음선원 신도단체다. 이들이 선보이는 연회단의 무용과 율동, 그리고 장엄등을 볼 때면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문적이며 훌륭하다.

한마음선원은 어린이·학생회·청년회·거사·보살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연등축제 준비에 참여하지만 이들의 중심축에는 안양본원 청년회가 있다.

청년회 범우들은 나뉘어 매년 연등회에 참가하기 3-5개월 전부터 맹연습을 한다. 이들은 모두 학생·직장인·취업준비생 등으로 구성된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시간을 따로 내어 법회와 연습에 참여한다. 그 결과 매년 봉축위원회가 시상하는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 신도단체는 10여 회 법회 상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청년회 범우들은 바쁜 일상 중에 신행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일까.

이승재 한마음선원 청년회장(33)은 “예전에는 성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회에 오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혼자 공부할 때는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100~150여 청년범우들이 모여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고 있다.

청년회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으라는 대행 스님의 뜻을 이어 법사 스님의 지도 아래 도반들과 담선(談禪)을 통해 함께 정진하고 있다. 또한 합창단과 풍물패, 미디어팀 등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동아리에 참여해 진목을 도모한다.

청년회 범우들은 이런 신행·취미활동을 개인적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한다.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제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장병 위문공연을 위해 열린 ‘한마음 음악제’가 그렇다. 범우들은 어린이회와 함께 밴드공연, 댄스, 합창 등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였다. 12월 19일 선거날에도 투표를 마치고 안양 불교문화회관에 모여 연습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었다.

국민호 청년회 부회장(29)은 “예전에는 물질만 추구하는 사회와 친구도 경쟁자가 되는 현실이 한스러웠다”며 “하지만 절에 오면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이 있어 진로고민을 나누고 서로 멘토가 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회에서는 내 중심을 똑바로 세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내가 똑바로 서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은 기자

“부처님 품에서 마음 열기 배워요”

젊은 불자 모임 ‘영 108’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젊은 불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2011년 2월, 100여 명에 이르는 직장인과 대학생 불자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마음을 화두로 삼아 공부하는 젊은 불자 네트워크를 창립했다. 바로 ‘영108(YOUNG 108)’이다.

‘영108’은 20~40세에 이르는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여성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은 젊은 불자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인재로서 활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100여 명. 회원 자격은 불교적인 철학을 공유하면서 수행과 만남, 나눔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영108’ 회원들은 수행, 만남, 나눔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다. 수행에 있어서는 여러 지도 법사와 전문위원들에게 불교 교리 공부와 명상 등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있다. 회원들은 2011년 11월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신혼여행(신나게 혼나는 여행)’을 열어 법륜 스님에게 고민을 말하고 해답을 듣는 즉문즉설 형식의 법회를 진행했으며, 최근 11월에는 장휘옥 오곡도수련원장을 초청해 강화를 주제로 한 법문을 들었다.

또한 젊은 세대답게 이태원, 압구정 등에서 불교식 클럽 파티를 열어 획기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2011년 이태원에서 열린 ‘제1회 BIP 옴 파티’에는 힙합 가수 MC스나이퍼 등이 초청됐고 댄스 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불교뿐 아니라 이웃종교 젊은이들도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에 열린 두 번째 행사에서는 ‘레인보우 옴파티’라는 주제로 한국 젊은 불자들이 다문화 불자가족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밖에 ‘영108’ 회원들은 수행프로그램을 개발, 소모임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체험, 소외아동과 함께 하는 나눔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목을 다지고 있다.

영108 회원인 김민지(29) 씨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영108은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도반으로 느껴져 편하고 진실되게 교류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려나가는 청년들이 영108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도움도 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회원인 서용근(29) 씨는 “같은 불자들이 모여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편인데 이곳에서 서로 마음수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니 위로가 된다”며 “또 실생활에서 수행을 해나가니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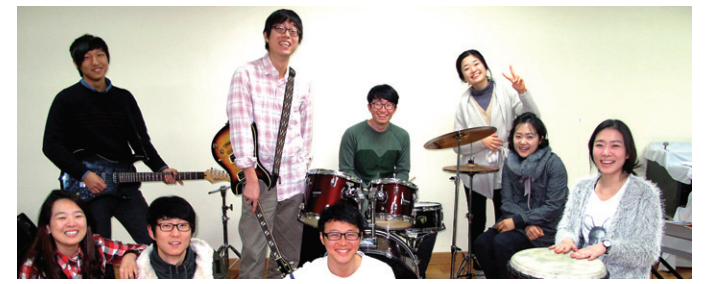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를 진행한 정도회 청년부가 홍보활동을 펼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도회 청년부는 전국적으로 청년부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진은 포항 청년정도회 창립식 장면.



안양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2011년 11월 ‘한마음음악제’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한 장면을 선보였다.



지난 연말 군장병 위문공연을 위해 공연연습을 하고 있던 한마음선원 청년회 범우들.



영108 회원들이 용인 청소년의 집 어린이들과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나간 모습.



2011년 이태원에서 열린 ‘제1회 BIP 옴 파티’에서 여흥을 즐기는 영108 회원들.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 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위원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총무원 총무원장 석해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민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법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해주 동원부장 석법원 이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무술위원장 염태일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기 획 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교 육 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은오 강원원장 석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총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신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치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입 중 안 내 ◆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해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